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4호 [루계 제23266호] 주제 99 (2010)년 11월 10일 (수요일)

붉은기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자!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하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로씨야 하바롭스크시장이 선물을 올리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 하바롭스크시장이 선물을 올리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조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 차수동지가 애석하게도 병으로 서거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 조선인민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조명록동지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되는 위문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조명록동지는 조선의 자유독립파 사회주의의 유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불멸의 공훈을 세웠으며 종조친 혈족 관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귀중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조명록동지의 서거는 중국인민에게 있어서 오랜 벗을 잃은 것으로 됩니다.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2010년 11월 8일

베이징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보도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5일 중국과 라오스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환구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복수 많은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회천발전소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하였다.
라오스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령도자께서 10월 음악회 결속공연 관람』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

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은하수 『10월 음악회』 결속공연을 관람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의 지향과 염원을 그대로 반영한 사상에 술성이 높은 최상급의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캐나다 세월 바라던 리상과 남원이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위대한로동당

시대를 겪어온 노래하였으며 당시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은하수관련학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 예술창조활동을 꾸준히 벌여 군대와 민족을 강성대국건설위업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예술창조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파업들을 제시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 차수동지가 애석하게도 병으로 서거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 조선인민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조명록동지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되는 위문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조명록동지는 조선의 자유독립파 사회주의의 유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불멸의 공훈을 세웠으며 종조친 혈족 관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귀중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조명록동지의 서거는 중국인민에게 있어서 오랜 벗을 잃은 것으로 됩니다.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2010년 11월 8일

베이징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힘있게 벌리자

서해지구에 펼쳐진 또 하나의 만년재부

분지만간석지 완공, 준공식 진행

【옹진 11월 9일 발조선증】 옹진군에 분지만간석지가 건설되어 준공하였다.
이 간석지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대자연개조사장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서해지구에 걸쳐진 우리 조국의 또 하나의 만년재부이다.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수심정보의 간석지가 건설됨으로써 나리의 농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전진이 이루어져 되었다.

준공식이 9일에 진행되었다.

준공식에는 로배련황해남도 당위원회 책임임서, 최용남도 동총경리위원회 위원장, 문봉간석지건설지도국 국장, 판계부문 일군들, 황해남도 간석지건설현장에서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로배련책임임서가 준공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제 97(2008)년 4월 황해남도 간석지건설현장에서 분지만간석지건설과업을 달겨주시고 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옹대한 구상을 현실로 끊임없이 위하여 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날부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편직물 생산에서 혁신

편직공업 관리국 아래 편직공장들에서

더욱 세차게 자리를 려야

합니다.»

판리국의 일군들은 인민생활 대고조의 해인 올해에 편직률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벌려나고 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들을 깊이 자각하고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최신과학기술성과를 생산에 적

극 받아들여 로동생산능률을 부

단히 높이는 것을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틀어쥐고 생산공정의 현

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공직장, 직조직장, 염색작업반

을 비롯한 공장의 모든 직장, 작업반의 일군들은 원료, 자재 보장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생산자들을 짜고들여 관리정신을 지니고 맡겨진

작업을 험난하게 이겨냈

이 수행하였다. 품질은 10월

인민경제계획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쳐내었다.

선교편직공장에서도 인민들

의 기호에 맞는 갖가지 뜨개웃

들과 내의류들을 더 많이, 더

질좋게 생산하기 위한 불꽃튀

는 투쟁을 벌여 년간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끌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종합직장, 완성직장의 일

작업반은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규정과 표준조

작업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갖

가지 색깔고운 내의류생산에

신진을 창조하고 있다.

에국편직물을 공장, 신의주편직

공장, 해주편직공장, 사리원편직

공장, 평양어린이편직공장

과 함께 대고조진군을 더욱 힘있

게 다그치고 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의로동자, 기술자들도 편직물 생산에서 전폐없는 양상을 일으켜 년간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갖가

지 양말생산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질좋은

양말들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위대한장군님의 그나쁜 일정

속에 솔직한 품질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하고 있다.

판리국 아래 각자 공장의 일

군들과 토목제작과는 대체로

정신을 받들고 승리의 신심과

높이 고개를 들여 기관을

부단히 높여 기관마다 만가

동, 만부하를 걸어 매일 계획

을 넘겨 수행하고 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대고조전투장의 새 소식

대상설비생산성과 확대 안주쁨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안주쁨프공장의 일동계급이 높은 양양을 맞으며 년간 계획을 넘기고 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기간 중요대상설비생산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쟁으로 토대하여 공정간 협력을 확장하고 있다.

력사적인 당대 표자회정신을 통하여 일군들도 10월에도 계표별 생산계획을 넘기고 수행한 한 기관을 통해 전투를 벌여나가기 위한 대고조전군을 결속하기 위한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력사적인 당대 표자회정신을 넘기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조직의 지도밑에 직장, 작업반별사회

주체의 경쟁을 조직진행하여 생산을 절단적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대중을 힘있게 떠밀여주고 있다.

선행공정을 맡는 소제생산부문의 일동계급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각종 뽐프소재들을 넘기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프레스작업반에서는 생간지대에서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방향으로 진행하여 기능공대별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공장에서는 품류에 의한 한 기관을 넘기고 수행하고 있다. 품류부문에서도 협력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소제가공의 질을 높이면서 생산을 빠른 속도로 다그치고 있다.

청년가공직장의 생간지대는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떠밀여주고 있다. 품류부문에서 다른 규격의 뽐프를 세차게 탈바꿈하고 있다. 청년조립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공장기술집단과 힘을 합쳐 뽐프특성시험설비들의 불길이 부문을 마련해놓고 가공설비를 세차게 탈바꿈하고 있다.

청년조립직장의 일군들은 품류부문에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떠밀여주고 있다. 품류부문에서 다른 규격의 뽐프를 세차게 탈바꿈하고 있다. 청년조립직장의 일군들은 품류부문에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떠밀여주고 있다. 품류부문에서 다른 규격의 뽐프를 세차게 탈바꿈하고 있다. 청년조립직장의 일군들은 품류부문에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떠밀여주고 있다.

청년조립직장의 일군들은 품류부문에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떠밀여주고 있다. 품류부문에서 다른 규격의 뽐프를 세차게 탈바꿈하고 있다. 청년조립직장의 일군들은 품류부문에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떠밀여주고 있다.

청년조립직장의 일군들은 품류부문에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떠밀여주고 있다. 품류부문에서 다른 규격의 뽐프를 세차게 탈바꿈하고 있다. 청년조립직장의 일군들은 품류부문에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떠밀여주고 있다.

청년조립직장의 일군들은 품류부문에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떠밀여주고 있다. 품류부문에서 다른 규격의 뽐프를 세차게 탈바꿈하고 있다. 청년조립직장의 일군들은 품류부문에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떠밀여주고 있다.

청년조립직장의 일군들은 품류부문에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떠밀여주고 있다. 품류부문에서 다른 규격의 뽐프를 세차게 탈바꿈하고 있다. 청년조립직장의 일군들은 품류부문에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떠밀여주고 있다.

청년조립직장의 일군들은 품류부문에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떠밀여주고 있다. 품류부문에서 다른 규격의 뽐프를 세차게 탈바꿈하고 있다. 청년조립직장의 일군들은 품류부문에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떠밀여주고 있다.

년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수성천종합식료공장에서

<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관철에 힘있게 고무추동

돌파구를 열어 제끼는 혁신적 사업기풍

공동사설과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올해의 총돌격전을 힘 있게 주동하고 있는 단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일군들이 대책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앞제를 예고 지방공업공장들의 기술개선을 힘 있게 떠밀어 인민소비품생산을 힘 있게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기 위한 총공격전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혁명의 지휘성원인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올해 정초에 있은 한가지 사실을 보기로 하자.

어느날 시당 책임일군은 어느 한 지방공업공장을 담당한 일군과 마주앉아 그 단위의 개진공사추진정형을 알아보았다.

그 일군은 실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종업원들의 기세는 대단한데 세멘트를

단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비롯한 일부 자체가 부족하여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고 하였다.

그 다음이 문제였다.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 게 하였는가고 책임일군이 물자 그 일군은 시민위원회의 해당부서에 자체를 제때에 보장하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고 하면

서 말끝을 염두버렸다.

그의 말에서는 걸린 문제를

자기가 책임 있는 팀장에서 한 몸을 내대여 풀어나가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았다.

실태를 장악하고 대책을 세우게 한데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해 앞제를 제거하는데 문제를 있다.

(대책을 세워주는데 그럴것

이 아니라 앞제를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책임일군은 어느 한 모임에서 아래단위사업을 지도하는데서 어떤 사업에도 가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는데

반기증기로 부족되는 문제를

제기해온 일군들이 돌격전의 제

1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것은 시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자신들의 사업정형에 대하여 행철히 들이켜보게 하는 계기로 되었다.

그들의 사업기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목제품생산협동조합

을 맡은 시당위원회 한 일군의

사업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사실 목제품생산협동조합의

실태는 지방공업공장들중에서

제일 어려웠다고 말할수

있었다. 그 일군은 실태를 해석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운 다음

제일 걸린 고리를 말아나섰다.

그는 인민위원회 해당부서의

기밀한 현계게임 세멘트와

목재, 유리를 비롯한 건공사

제품을 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기해온 일군들이 문제를

제거하는데 문제를 있다.

그 일군은 일제를 해당부서의

기밀한 현계게임 세멘트와

목재, 유리를 비롯한 건공사

제품을 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기해온 일군들이 문제를

제거하는데 문제를 있다.

그 일군은 일제를 해당부서의

기밀한 현계게임 세멘트와

목재, 유리를 비롯한 건공사

제품을 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기해온 일군들이 문제를

제거하는데 문제를 있다.

그 일군은 일제를 해당부서의

기밀한 현계게임 세멘트와

목재, 유리를 비롯한 건공사

제품을 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기해온 일군들이 문제를

제거하는데 문제를 있다.

그 일군은 일제를 해당부서의

기밀한 현계게임 세멘트와

목재, 유리를 비롯한 건공사

제품을 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기해온 일군들이 문제를

제거하는데 문제를 있다.

그 일군은 일제를 해당부서의

기밀한 현계게임 세멘트와

목재, 유리를 비롯한 건공사

제품을 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기해온 일군들이 문제를

제거하는데 문제를 있다.

그 일군은 일제를 해당부서의

기밀한 현계게임 세멘트와

목재, 유리를 비롯한 건공사

제품을 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기해온 일군들이 문제를

제거하는데 문제를 있다.

그 일군은 일제를 해당부서의

기밀한 현계게임 세멘트와

목재, 유리를 비롯한 건공사

제품을 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기해온 일군들이 문제를

제거하는데 문제를 있다.

그 일군은 일제를 해당부서의

기밀한 현계게임 세멘트와

목재, 유리를 비롯한 건공사

제품을 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기해온 일군들이 문제를

제거하는데 문제를 있다.

그 일군은 일제를 해당부서의

기밀한 현계게임 세멘트와

목재, 유리를 비롯한 건공사

제품을 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기해온 일군들이 문제를

제거하는데 문제를 있다.

그 일군은 일제를 해당부서의

기밀한 현계게임 세멘트와

목재, 유리를 비롯한 건공사

제품을 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기해온 일군들이 문제를

제거하는데 문제를 있다.

그 일군은 일제를 해당부서의

기밀한 현계게임 세멘트와

목재, 유리를 비롯한 건공사

제품을 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기해온 일군들이 문제를

제거하는데 문제를 있다.

그 일군은 일제를 해당부서의

기밀한 현계게임 세멘트와

목재, 유리를 비롯한 건공사

제품을 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기해온 일군들이 문제를

제거하는데 문제를 있다.

그 일군은 일제를 해당부서의

기밀한 현계게임 세멘트와

목재, 유리를 비롯한 건공사

제품을 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기해온 일군들이 문제를

제거하는데 문제를 있다.

그 일군은 일제를 해당부서의

기밀한 현계게임 세멘트와

목재, 유리를 비롯한 건공사

제품을 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기해온 일군들이 문제를

제거하는데 문제를 있다.

그 일군은 일제를 해당부서의

기밀한 현계게임 세멘트와

목재, 유리를 비롯한 건공사

제품을 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기해온 일군들이 문제를

제거하는데 문제를 있다.

그 일군은 일제를 해당부서의

기밀한 현계게임 세멘트와

목재, 유리를 비롯한 건공사

제품을 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기해온 일군들이 문제를

제거하는데 문제를 있다.

그 일군은 일제를 해당부서의

기밀한 현계게임 세멘트와

목재, 유리를 비롯한 건공사

제품을 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기해온 일군들이 문제를

조국과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남포시 인민보안국

전국의 방방곡곡으로 이어지는 취재기에서 우리는 종종 조국과 인민을 위해 소문없이 큰 일을 하는 인민보안원들을 만나곤 한다. 한생을 묵묵히 고기들이 그들의 걸어온 복무의 길에는 사람들이 다 모르는 위험의 자욱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흘린 땀을 계산할 줄 모르는 기울인 희생을 후회할 줄도 모른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것이 그들의 한생을 기록처럼 떠받친 신념이다. 남포시 인민보안국 국립군인 김광수동무는 바로 그런 신념의 소유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를 앞에서는 막을 대답할 것이다.』

김광수동무는 지난 수십년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복무의 한결을 벙어렸다. 예제에 걸으며 많은 위험을 세운 인민의 참된 보안일군이다.

인민보안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가는 그가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용정신, 열렬한 애국심, 인민에 대한 사랑과 혼신성을 우리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세대 인민보안일군들이 어떤 고결한 정신세계와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인민보안원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어떤 복무자들인가를 뜨겁게 보여주고 있다.

당이 바라고 인민이 요구하는 일이라면 내일, 내일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인민보안일군으로서의 김광수동무의 특징이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듯 시장 책임임무의 눈을 벌써 몇 번이나 회의장을 찾았으며 지났다. 그때였다. 군부임은 한 일군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저희들이 말하겠습니까?』

모두의 눈길이 해辨别에 얼굴을

이 거짓거나 한 김광수동무에게로 쏟아졌다. 뜻밖이라는 듯 누구나 놀라워하는 표정이었다.

여느 기관일군도 아닌 시

인민보안원의 일군이 도로건설

을 자진해 나왔으나 그럴 만도 하였다.

굳은 결심이 비겁한 김광수동

무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던

로서의 김광수동무의 특징이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의 협

의회가 열리었다.

회의에는 김광수동무도 참

가하였다. 이미 도로건설처 팀

부가 조직되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여 도로공사

는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자체와 외력 등 많은

문제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공사였다.

여러모로 보아 중요하고 또 한

시비빼 끝내야 할 도로건설이

었다. 이러한 공사의 중요성

을 제작하는 시장책임일군

의 말을 깊은 생각속에 들으

며 김광수동무는 몇몇 기본적

도로건설장의 규모를

제작하고자 했다. 대충 계산

해보아도 도로건설에 드는 자

재가 많아 방도를 찾

았다. 그들에게서 어떤 좋은 안

나오기를 기다리는 듯 시장책임일군의 눈에는 벌써 몇 번이나 회의장을 찾았으며 지났다. 그때였다. 군부임은 한 일군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저희들이 말하겠습니까?』

모두의 눈길이 해辨别에 얼굴을

이 거짓거나 한 김광수동무에게로 쏟아졌다. 뜻밖이라는 듯 누구나 놀라워하는 표정이었다.

여느 기관일군도 아닌 시

인민보안원과 일군이 도로건설

을 자진해 나왔으나 그럴 만도 하였다.

굳은 결심이 비겁한 김광수동

무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던

로서의 김광수동무의 특징이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듯 시장책임일군의 눈에는 벌써 몇 번이나 회의장을 찾았으며 지났다. 그때였다. 군부임은 한 일군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저희들이 말하겠습니까?』

모두의 눈길이 해辨别에 얼굴을

이 거짓거나 한 김광수동무에게로 쏟아졌다. 뜻밖이라는 듯 누구나 놀라워하는 표정이었다.

여느 기관일군도 아닌 시

인민보안원과 일군이 도로건설

을 자진해 나왔으나 그럴 만도 하였다.

굳은 결심이 비겁한 김광수동

무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던

로서의 김광수동무의 특징이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듯 시장책임일군의 눈에는 벌써 몇 번이나 회의장을 찾았으며 지났다. 그때였다. 군부임은 한 일군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저희들이 말하겠습니까?』

모두의 눈길이 해辨别에 얼굴을

이 거짓거나 한 김광수동무에게로 쏟아졌다. 뜻밖이라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남포시에서는 남포시에 건설될 집합부동으로 통하는 한 도로건설현장을 놓고 시안의 일군들이 그를 찾았다. 그들이 찾은 일군들은 김광수동무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좋은 안내나 조언을 기다리는 들판에는 김광수동무의 표정이었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에는

</div

대화분위기를 살려나가는 것은 절실한 과제

우리 겨레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을 바라고 있다. 나라의 통일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룩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힘장은 변함이 없다.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자면 북남사이의 대화를 발전시키고 협력을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는데서 지금 초미의 문제로 나서는 것은 대화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는 것이다.

대화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사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꼭꼭 많은 북남대화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 주고 있다. 북남대화가 전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결실 있는 대화로 되자면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결소동이 중지되어야 한다. 일방이 대화상대방을 불신하고 대화분위기를 흐리는 행위를 계속하는 조건에서는 그 무엇도 대회할 수 없다.

현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책동으로 말미암아 북파·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최악의 국면에 이른 오늘 대화의 길을走出来는 특별히 중요하게 기다린다. 지금 북남관계는 파국적 상태에 처해 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의 동족에 대한 불신과 대결의 감정은 여전하며 그에 따른 반공화국운동은 날로 악발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현 수보당국이 출현한 이후 북남사이에 온전한 대화도 협력도 없이 북남관계가 심히 악화된 것은 동족을 반대하는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대결소동에 그 원인이다. 남조선당국은 대화상대방인 우리 공화국을 「주적」으로 대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대결을 강화하는데만 굽굽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반대소동을 끌어내지 않고서는 북남대화가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대화분위기를 살려나가자면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힘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북남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노력은 진지하고 성의 있는 것이다.

얼업전바와 같이 최근 우리 공화국은 남조선에서 『천안』호 사건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악랄하고 절묘하게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주동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으로 훌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전진됨으로써 북남관계는 파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우리는 지금 모처럼 대화와 협력의 기운을 북남관계의 본질적인 개선에 이어 지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전 북남적십자회담에서 훌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정상화하고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은 사실과 조국으로 조성된 원증한 자세와 힘장을 고집하였으며 불성실한 자세와 힘장을 고집하고 있다.

현실은 남측이 말로만 대화와 북남관계를 은폐하거나 차운 친척 상봉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런 부당한 자세와 힘장이 대화분위기를 심히 흐려놓고 있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대화분위기를 살려나가자면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도발행위를 일체 중지하여야 한다.

대화상대방을 적시 하며 도발행위를 일삼는 자세가 대화를 부정하는 것이다.

남조선에서는 모략적인 합선침몰 사건으로 무분별한 단계에 따른 반공화국적 대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남조선호전들은 그 무슨 『도발 억제』나 『대비태세 확립』이니 하고

떠들면서 각종 북침 전쟁연습소동들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김 정 옥

와 힘장을 보이고 있다. 남측은 북남적십자회담에서 훌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토의할 때 대한 우리의 제의를 더이상 거부하였으며 다음번 회의를 끝내고는 또다시 회담개최 자체를 확산방지구상을 혼란에 치른다. 남조선군부세력은 시대착오적인 「주적」론을 떠들어대며 남조선사회에 국도의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또한 이지도 않는 『북의 위협』을 광고하며 미국에 북침 핵전쟁도발을 위한 『확장 억제력제공』을 애걸하고 있으며 정세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공화국심리전을 강화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어 대고 있다.

대화와 군사적 대결소동은 량립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대결소동을 날로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대화와 반행위로서운 민족의 치솟는 분노와 항의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남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판관적인 사업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북남대화의 장에는 하루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대결판념에 따른 대화상대방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힘장을 가져야 하며 대화상대방을 위협하고 해치기 위한 무모한 군사적 대발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지금처럼 시대의 요구와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면서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도발행위를 일체 중지하는 것은 그것이 잘 해주고 있다.

대화분위기를 살려나가자면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도발행위를 일체 중지하여야 한다.

대화상대방을 적시 하며 도발행위를 일삼는 자세가 대화를 부정하는 것이다.

남조선에서는 모략적인 합선침몰 사건으로 무분별한 단계에 따른 반공화국적 대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남조선호전들은 그 무슨 『도발 억제』나 『대비태세 확립』이니 하고

떠들면서 각종 북침 전쟁연습소동들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다.

김 정 옥

여론을 오도하는 당치 않은 궤변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거냥한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군의 령합 공중전훈련이 광란적으로 벌어졌으며 부산앞바다에서는 우리 선박들을 차단, 겹색할 것을 노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혼란에 치른다. 남조선군부세력은 시대착오적인 「주적」

론을 떠들어대며 남조선사회에 국도의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또한 이지도 않는 『북의 위협』을 광고하며 미국에 북침 핵전쟁도발을 위한 『확장 억제력제공』을 애걸하고 있으며 정세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공화국심리전을 강화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어 대고 있다.

우리는 이미 6자회담재개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유사시』 남조선에 대한 『확장 억제력제공』을 다시금 모의하고 『확장 억제정책 위원회』를 가동시킬 것을 선언한 것은 우리에 대한 보편적인 협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환은 아직 6자회담재개의 근본장애가 무엇인지 분간 못하고 있다. 그가 마치 6자회담이 우리에게 문제로 제기되거나 벌어진다는 듯이 국심 한 사설의 꼭이며 조선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자세로써는 회담재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6자회담재개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유사시』 남조선에 대한 『확장 억제력제공』을 다시금 모의하고 『확장 억제정책 위원회』를 가동시킬 것을 선언한 것은 우리에 대한 보편적인 협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환은 아직 6자회담재개의 근본장애가 무엇인지 분간 못하고 있다. 그가 마치 6자회담이 우리에게 문제로 제기되거나 벌어진다는 듯이 국심 한 사설의 꼭이며 조선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자세로써는 회담재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최근 내외호전파들이 『년예안보협의회』라는 것을 통해 『유사시』 남조선에 대한 『확장 억제력제공』을 다시금 모의하고 『확장 억제정책 위원회』를 가동시킬 것을 선언한 것은 우리에 대한 보편적인 협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환은 아직 6자회담재개의 근본장애가 무엇인지 분간 못하고 있다. 그가 마치 6자회담이 우리에게 문제로 제기되거나 벌어진다는 들판에 같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함께 『천안』호 사건을 걸고 북침전쟁불장난소동을 벌여놓으면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 내외호전파들이 『년예안보협의회』라는 것을 통해 『유사시』 남조선에 대한 『확장 억제력제공』을 다시금 모의하고 『확장 억제정책 위원회』를 가동시킬 것을 선언한 것은 우리에 대한 보편적인 협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환은 아직 6자회담재개의 근본장애가 무엇인지 분간 못하고 있다. 그가 마치 6자회담이 우리에게 문제로 제기되거나 벌어진다는 들판에 같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의 궁정적인 정세변화분위기를 태고 6자회담재개에 대한 내외의 주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북남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원증한 대화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진해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시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격과 드는 격의 가소로운 궤변이다.

최근 조선반도에 나타난 일련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잡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진들, 철세워인들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들을 모시고 특집 하였다.

로씨아신문은 『하버스롭스카야 브라우다』 10월 1일부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사회주의 위업의 향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계 사회에서 가장 강위력한 불폐의 당, 강철의 당으로 부르고 있으며 당창건 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일성 주석을 끌어들이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조선로동당의 역사적 뿐만 아니라 『로. 캐』에 대해 소개하고 김일성 주석의 당건설 업적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및 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혁신의 순간 자체로 난관을 승리적으로 이겨내며 사회주의의 확실한 성과를 보이고 하면서 신문은 당의 두드러운 일심단결로 조선사회는 훨씬 더 강해졌다. 『데일리 페니처』 10월 1일부는 『김정일총비서 각하와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 대표자 회화

당창건 65돐』이라는 표제밑에 『신군정치의 위력으로』, 『강성 대국건설의 전문에서』 등 제

독창적인 당건설방식』, 『당창 건의 신포』, 『조선로동당미크』 등 제목들로 위대한 수령님의 목의 글들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 회화는

김정일령도자를 당총비서로

변함없이 둘이 추대하였다.

김정일총비서 각하의 평도밀을

5년역사를 소개하는 글을

한국 홍콩잡지 『국제현계』

10월 10일부터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을 열렬히 축하한

다』라는 표제밑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65년역사를 소개

하는 글을 펼쳤다.

중국 홍콩잡지 『국제현계』

10월 10일부터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며 존엄

한 혁명의 대국가마다에 승리

와 영광의 자축을 아로새겨온

조직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65돐에 즈음하여

라는 표제밑에 기념글들을 실

었다.

신문은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것을 실현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조선로동당의

영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총비서를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 조선로동당은 백전

승의 강철의 당,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폐의 당으로 강화발전될 수

있다고 하면서 경에 대해

장군께서 지난 세기 말엽 선

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구드

시고 사회주의 우호수를 현열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펼쳤다.

신문은 『사회주의 위업의

향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은 1945년 10월 10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 날

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평도밀에

영광과 전설에서 자랑한 성

과를 거두고 있다가 보도하고

우리 나라 영화 『오늘의 평양』

을 방영하였다.

* * *

인도네시아신문 『국제일보』

10월 6일부는 당창건자

판, 주체사상판, 철마제 강

련합기념사업, 원원발전소

언제사진들과 기념글들을 펼쳤다.

신문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이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신문 『라 브로스 베리파』 10월 7일부와 우

간다신문 『싼 라이즈』 10

월 1일부도 지난 세기 말엽 선

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구드

시고 사회주의 우호수를 현열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펼쳤다.

신문은 『이민을 위하여 복

무하는 당』이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신문 『라 브로스 베리파』 10월 7일부와 우

간다신문 『싼 라이즈』 10

월 1일부도 지난 세기 말엽 선

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구드

시고 사회주의 우호수를 현열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펼쳤다.

신문은 『인민을 위하여 복

무하는 당』이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신문 『라 브로스 베리파』 10월 7일부와 우

간다신문 『싼 라이즈』 10

월 1일부도 지난 세기 말엽 선

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구드

시고 사회주의 우호수를 현열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펼쳤다.

신문은 『인민을 위하여 복

무하는 당』이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신문 『라 브로스 베리파』 10월 7일부와 우

간다신문 『싼 라이즈』 10

월 1일부도 지난 세기 말엽 선

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구드

시고 사회주의 우호수를 현열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펼쳤다.

신문은 『인민을 위하여 복

무하는 당』이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신문 『라 브로스 베리파』 10월 7일부와 우

간다신문 『싼 라이즈』 10

월 1일부도 지난 세기 말엽 선

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구드

시고 사회주의 우호수를 현열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펼쳤다.

신문은 『인민을 위하여 복

무하는 당』이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신문 『라 브로스 베리파』 10월 7일부와 우

간다신문 『싼 라이즈』 10

월 1일부도 지난 세기 말엽 선

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구드

시고 사회주의 우호수를 현열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펼쳤다.

신문은 『인민을 위하여 복

무하는 당』이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신문 『라 브로스 베리파』 10월 7일부와 우

간다신문 『싼 라이즈』 10

월 1일부도 지난 세기 말엽 선

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구드

시고 사회주의 우호수를 현열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펼쳤다.

신문은 『인민을 위하여 복

무하는 당』이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신문 『라 브로스 베리파』 10월 7일부와 우

간다신문 『싼 라이즈』 10

월 1일부도 지난 세기 말엽 선

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구드

시고 사회주의 우호수를 현열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펼쳤다.

신문은 『인민을 위하여 복

무하는 당』이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신문 『라 브로스 베리파』 10월 7일부와 우

간다신문 『싼 라이즈』 10

월 1일부도 지난 세기 말엽 선

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구드

시고 사회주의 우호수를 현열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펼쳤다.

신문은 『인민을 위하여 복

무하는 당』이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신문 『라 브로스 베리파』 10월 7일부와 우

간다신문 『싼 라이즈』 10

월 1일부도 지난 세기 말엽 선

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구드

시고 사회주의 우호수를 현열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펼쳤다.

신문은 『인민을 위하여 복

무하는 당』이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신문 『라 브로스 베리파』 10월 7일부와 우

간다신문 『싼 라이즈』 10

월 1일부도 지난 세기 말엽 선

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구드

시고 사회주의 우호수를 현열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펼쳤다.

신문은 『인민을 위하여 복